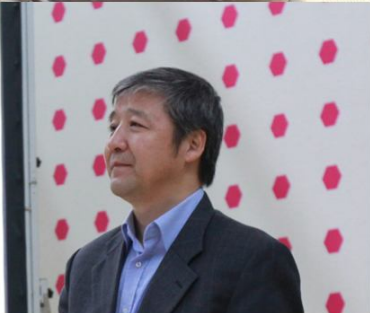


2013. 10.15. 09:00부터 배포 가능합니다.



제 목 : 미디어시티서울 2014 프리비엔날레 -대화: 예술의 보편성과 '동아시아'

1) 알랭 바디우, 왕후이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특강



◆ 미디어시티서울 2014에서는 프리비엔날레의 첫 번째 행사로 세계적인 석학 알랭 바디우와 왕후이의 특강을 진행했다. 삼일간의 강연 프로그램에 약 1,200여명의 시민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첫 한국 방문이었던 알랭 바디우의 강연은 그동안 책으로만 바디우의 사상을 접해온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국내 유일의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로, 올해는 다양한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비엔날레와는 달리, 미디어시티서울 2014은 전시 주제 자체를 프리비엔날레의 다양한 강연과 토론 등을 통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중에 하나인 “예술의 보편성과 동아시아”는 알랭 바디우, 왕후이 등의 주요 지식인들이 비엔날레의 주제와 연관된 특강,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알랭 바디우는 월러스 스티븐스Wallace Stevens의 시 등을 예로 들어 예술의 역량에 대하여 언급하며 우리에게 예술의 보편성과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그의 입장과 더불어, 예술적 진리가 위협당하고 있는 오늘날 예술에 주어진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국내에 바디우의 이론을 꾸준히 소개해온 서용순이 이해를 도왔으며,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67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강연 이후에도 바디우는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동안 바디우와의 만남을 기대해온 이들에게 성실히 화답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제 비엔날레에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인종과 인종 사이의 경계를 넘겠다는 논의 또한 활발하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이러한 논의가 적절한 실천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역사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현실에 우선 주목한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예술의 보편성 가운데 오리엔탈리즘의 경계를 논의하고 증대하는 보수적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맞서는 방법을 모색했으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새로운 미디어환경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온 칭화대 왕후이 교수를 초청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로비에서 380명 이상의 시민들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제국과 지역, 동아시아 내부의 관계와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토론했다. “미술관에서의 강연이라 무척 설레이는 심정이다”라고 입을 연 왕후이는 이날 “개념의 틀 때문에 모든 것을 비슷하게 해석한다면, 역사적 변화를 읽을 수 없다.”라는 인상적인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 **알랭 바디우**는 프랑스 현대철학의 한 축을 형성하는 철학자로, 신플라톤주의의 수호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비미학』, 『사도 바울』, 『사랑 예찬』 등 국내에서도 다수의 책이 번역된 바 있다.

■ **왕후이**는, 칭화대 교수로 1990년대 이해 중국 지식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동아시아의 역사와 현대정치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적 관계와 식민주의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트랜스-시스템 사회’라는 독특한 시각을 제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알랭 바디우, 왕후이 이외에도 황호덕, 세실 빈터, 정은영, 박소현, 서용순 등의 국내외 학자,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주제를 공유했다.

* 세부일정

9월 30일, 월요일 19:00	발표자: 왕후이 진행: 황호덕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제목: 중국과 중국의 모더니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0월 1일, 화요일 19:00	발표자: 알랭 바디우, 세실 빈터 진행: 서용순 장소: 서울특별시 신청사 다목적홀 (8층~9층) 제목: 문화의 특수성과 예술의 보편성 / 식민주의는 우리의 오늘이다
10월 2일, 수요일	발표자: 황호덕, 박소현, 정은영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19:00

진행: 박찬경

제목: 동아시아 브리콜라주_일본을 중심으로

‡ **왕후이 汪暉 Wang Hui** 칭화대(清華大) 교수. 잡지 '두슈(讀書)' 주관을 맡으며 1990년대 중국의 지식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 일으켰다. 그는 개혁개방의 부정적 요소와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전통적 사회주의와 다른 관점을 제시해왔다. 중국을 중심으로 제국과 지역,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트랜스 시스템 사회'를 주창한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아는 세계다』(2010),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전4권, 2004), 『죽은 불 다시 살아나』(2000)등이 있다.

‡ **황호덕**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문학평론가로 1999년 《문학사상》에 문학 평론을, 2001년 《KINO》에 영화 평론을 발표하며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고석규비평문학상, 한국비교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인문학의 정치성을 재탈환하기 위한 연속 기획 'WHAT'S UP 충서'를 기획 편집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벌레와 제국』(2011), 『프랑켄 마르크스-한국 현대비평의 성좌들』(2008),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타자, 교통, 번역, 에크리튀르』(2005)이 있다.

‡ **알랭 바디우 Alain Badiou** 현대 프랑스 철학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철학자로, 신플라톤주의의 수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 년 이후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여 신자유주의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당 없는 정치'를 주창하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철학을 위한 선언』(1989), 『비미학』(1998), 『사도 바울』(1998), 『세계의 논리들-존재와 사건2』(2006), 『사랑 예찬』(2011) 등의 철학서와 다양한 정치 팸플릿 및 시론을 발표했으며, 여러 편의 소설과 희곡도 썼다.

‡ **세실 빈터 Cécile Winter** 세실 빈터는 '프랑스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주의자 연합(UCFml)'의 일원이었고, 아프리카에서 의사 생활을 하며 식민주의와 에이즈에 맞서 싸웠다. 많은 팸플릿을 출간하였고, 알랭 바디우와 함께 『정황들 3』을 집필하였다. 빈터가 기고한 논문으로는 「신 아리안족의 주인기표, 유대인의 이름을 발설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

‡ **서용순**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몇 년간 바디우의 철학을 꾸준히 소개해 왔고, 존재론과 정치철학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옮긴 책으로는 『베케트에 대하여』(2013), 『철학을 위한 선언』(2010)이 있고, 「바디우 철학에서의 존재, 진리, 주체: 『존재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술의 모더니티와 바디우의 비미학적 사유」 등 다수 논문을 집필했다.

‡ **박소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이다. 국경에 의해 구획될 수 없는 미술의 역사를 다양한 미술제도와 담론의 차원에서 탐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戰場としての美術館』(2012), 『아시아이벤트』(공저, 2013), 『추상미술 읽기』(공저, 2012),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공저, 2009)등이 있다.

‡ **정은영** 정은영은 이름 모를 개개인들의 들끓는 열망이 어떻게 세계의 사건들과 만나게 되는지, 어떻게 저항이 되거나 역사가 되고, 정치가 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대표작으로는 다년간 여성국극 배우 공동체를 추적하는 "여성국극프로젝트" (2008-현재), 동두천 미군부대 지역 여성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 "동두천 프로젝트"(2007-2009)가 있다. "시연"(2010)을 포함한 세 번의 개인전과 "페스티벌 봄"(2013),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2013)등의 공연, 전시회에 참여했다.

● 기본 정보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시티서울2014)

협력 : 경희대학교

일시: 9월 30일, 저녁 7: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로비

10월 1일, 저녁 7:00 서울특별시 신청사 다목적홀 (8층~9층)

10월 2일, 저녁 7: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사무동 1층 회의실

서울시립미술관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Tel.: (02)2124-8979

Fax.: 02)2124-8977

E-mail: info.mediacityseoul@gmail.com

문의:

이기모 큐레이터

서울시립미술관

Office: 02.2124.8973

E-mail: gimo@seoul.go.kr

유주연 코디네이터

미디어시티서울 2014

Office: 02.2124.8979

E-mail: l jy.mcs@gmail.com

작품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서울시 웹하드시스템 접속 - <http://webdisk.eseoul.go.kr>

우측상단 '게스트' 옆 동그라미 클릭 후

아이디: bsjihye / 비밀번호: sema2013

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

PRESS RELEASE



홍보담당 변지혜

Public Relations Byun, Ji-Hye

전화) 02-2124-8928

이메일) bsjihye@seoul.go.kr

웹하드) <http://webdisk.eseoul.go.kr/>

ID:bsjihye PW:sema2013